작가 홈페이지

망각의 각인
프로젝트 사이트

오프닝 퍼포먼스 영상
1/20 영상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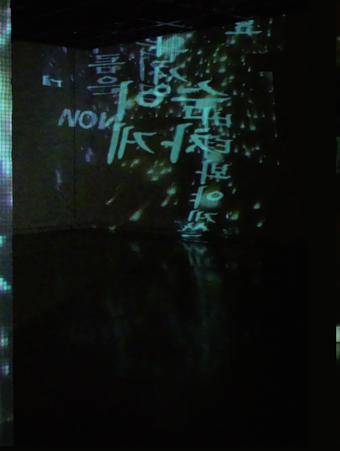
살아있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물리적 행위인 “숨”, 하지만 우리는 그 “숨” 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라면 그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개인은 그 사회를 기능하고 성장하게 하는 들숨과 날숨입니다.
다양한 숨을 찾아가는 작가의 예술 행위 속에서 창작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 또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The most fundamental physical act of living, "breath," but we live oblivious without recognizing the act of "breath."
If society is an organism, the individual who lives every day in it is the inhalation and exhalation that functions and grows that society.

I would also like to confirm my existence as a creator in the artistic activities of the artist seeking various shape of breaths.

- From the Artist's note. -



2021 대구예술발전소 리서치 프로젝트 결과 발표전시

OBLIVION: Imprinted

망 각 의 각 인

기획, 창작 최원규 Choi Wongyu

운영시간

동절기(11월>3월)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관람신청

관람을 희망하시는 관람객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입장확인을 한 후 QR코드로 입장 등록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측정 및 손소독 후 입장합니다. (2m 거리두기 유지)

Opening performance

2022 01 14 Fri. pm 7
Performer Kim kahyun 김가현

41920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수창동)
T 053. 430. 1225~8/1287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Choi Wongyu

대구문화재단 · DAEGU ART FACTORY 대구예술발전소 · Colorful DAEGU

Daegu art factory 2F exhibition hall

2022 01 14 > 02 13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시각 언어로 풀어내는 최원규 작가에 의해 기획 되었다. 2021년 4월 대구예술발전소의 “대구 리서치 프로젝트”에 선정된 최원규가 예술발전소에 머물며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자취를 추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작품은 만들어졌다. 2층 전시실을 가득 메우는 설치작품은 8개월 동안 작가가 지역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집한 오브제들로 채워졌다.
현재의 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해 기록하고, 사용한 각자의 시간이 담겨 있는 물건을 수집해 새로운 형태로 연출한 것이다.

전시 타이틀인 <Oblivion: Imprinted - 망각의 각인>은 현재의 대구를 만든 중·장년층의 인터뷰로 기록된 삶의 이야기를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수집한 바닥재인 장판에 각각 기록함으로써 곧 사라질 장소에서 축적된 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게 된다. 하나의 오브제이자 이제는 쓸모가 다해 폐기물로 버려진 거울은 전시장에 설치되어 존재의 메시지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거울의 집합은 거대한 군집으로 다가오는데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 나와 우리네 존재의 의미를 확장해 보게 한다. 바로 가슴 뭉클해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 후회한들 어쩌겠어! 그때는 좋았지. 근데 몹쓸 짓 많이 했어. 사람들한테도 마누라, 새끼들한테도....’,
‘머리 아픈덴 파스가 특효야 그런데 요즘은 영 시원찮아’

그렇게 보통의 삶은 작가의 예술 행위로 각인되어 다시 관객 앞에 선다.

강효연
<대구예술발전소 예술 감독>

How our lives are remembered.

This exhibition was planned by Choi Won-gyu, who unravels the trajectories of the lives of various people living in the contemporary era in visual language. Choi Won-gyu, who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project" of the Daegu arts factory in 2021, stayed in daegu, tracked the traces of citizens living in past and present, and recorded their stories. The installation, which fills the exhibition hall on the second floor, was filled with stories and collected objects from people the artist faced in the region for eight months. It summoned and recorded the memories of people living in Daegu today, and collected object containing their own time spent and directed them in a new form.
The exhibition title "Oblivion: Imprinted" is recorded as an interview with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ho made Daegu today.
By recording the story on the floor, each floor material collected in their living space, the artist share precious memories of individuals accumulated in places that will soon disappear.
A single object, and now a mirror that has been discarded into waste, is installed in the exhibition hall.
It strengthens the message of existence. The set of mirrors containing traces of time approaches a huge cluster, and at the same time, it becomes a mirror that reflects the present self and expands the meaning of our existence. This is because you can meet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who are touching.

"What can I do if I regret it now?" It was good then. But I did a lot of bad things. To people, my wife, and my sons...”
"The pain relief patch that gives me a headache is really good these days."

In that way, ordinary life is imprinted on the artist's artistic act and stands in front of the audience again.

Hyoyeon Kang
<Art director of daegu art factory>

OBLIVION: Imprinted

망각의 각인 / 가변설치

수집된 바닥재, 이야기, 와이어, 알루미늄패널

Variable installation / Collected floor, stories, wire, Al panel

길 위에서 만난 망각된 이야기들

이제는 곧 잊혀질 보통의 역사를 그들이 먹고 자고 아파했을, 그 시간이 스며든 바닥재에 새긴다.
나의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 많은 이름들..
타인의 삶을 기억하는 행위는 곧 나의 삶을 각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나의 삶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Forgotten history on the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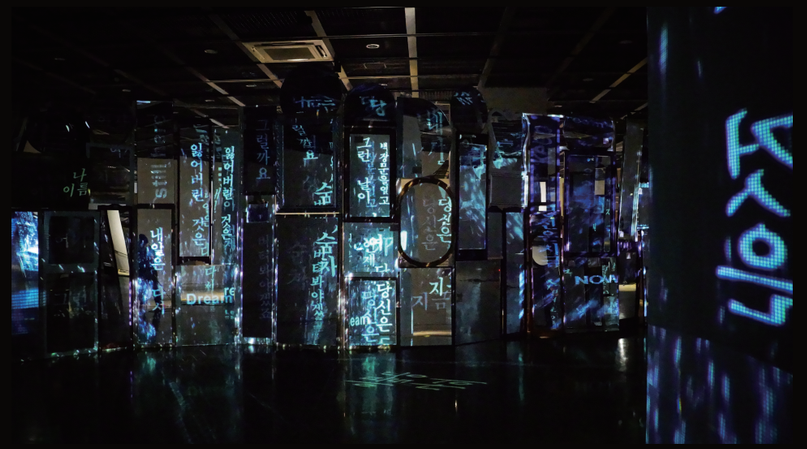
The ordinary history that will soon be forgotten is engraved on the floor where the time they would have eaten, slept, and been sick permeated.
My father, grandmother, and countless names that disappeared without names...
The act of remembering others' lives was a process of imprinting my life.
And...How will my life be remembered?

OBLIVION: Reflected

망각의 투영 / 가변설치

수집된 거울, 이야기, 목재, 프로젝션

Variable installation / Collected mirror, stories, wood, media projection



150개의 거울, 점멸하는 존재의 시그널

거울을 통해 투사되어 반사되는 이미지들은 “숨”처럼 분명히 존재하여 관객의 신체에 닿으나 인지되지 못한다.
존재의 상징인 거울을 통해 닿아 있음을 감지하지만, 들어다보려 다가갈수록 거울에 투영 된 메시지는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은유는 작가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매일을 스쳐지나는 지척의 삶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 주변부의 삶을 기억함으로서 다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나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 안의 “나”이며, “우리”의 존재를 잊는 순간 “나”의 존재도 희미해진다.

150 mirrors, flashing signals.

Images projected and reflected through the mirror clearly exist like "breath" and touch the body of the audience, but are not recognized. It senses that it is touching through a mirror, a symbol of being, but as you approach it, the message projected on the mirror disappears and looks only at your existence. This visual metaphor is a question that i asks to contemporarie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life again by remembering the lives of other being that pass by every day, but the lives of the surroundings that are not recognized or tried to ignore because they are not revealed.
It says, "How does my life want to be remembered? It's a story about.
"I" is "me" in "we", and the moment you forget the existence of "we", the existence of "me" also fades.